

고진영 8개월째 세계 1위 수성



▲ 고진영이 8개월째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사진=hansaemk.com

부상으로 대회에 나서지 못하는 고진영(27)이 8개월째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2주 연속 트로피를 들어 올린 김수지(26)는 세계랭킹 38위로, 지난주보다 9계단 올랐다.

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전날 밤 표된 세계 랭킹에서 고진영은 랭킹 포인트 7.91로 랭킹 1위를 유지했다. 고진영은 대회 출전을 못 해 랭킹 포인트도 쌓지 못 했지만, 그를 추격하던 넬리 코다(24·미국)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 1위를 지키고 있다.

2위는 7.48점을 기록한 태국의 신예 아타야 티띠꾼(19)이 차지했다. 티띠꾼은 LPGA 투어에서는 신인이지

만 이미 화려한 경력을 갖췄다. 2017년 초청 선수로 출전한 유럽 여자 프로골프 투어 타일랜드 챔피언십에서 프로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만 14세 4개월 19일)을 세웠다. 유럽 투어에서 아마추어 신분으로 2승, 프로 전향 후 2승을 거뒀고 지난해 올해의 선수상, 상금왕, 신인상을 따냈다. 코다는 3위로 떨어졌고, 이민지(26·호주)가 4위(7.00점), 리디아·고(25·뉴질랜드)가 5위(6.63점)였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고진영에 이어 전인지(28)가 7위, 김효주(27)가 10위를 차지했다. 또 김세영이 12위, 박민지가 18위, 최혜진이 21위에 자리했고, 지난달 25일 끝난 OK금융그룹 박세리 인비테이셔널과 이달 2일까지 열린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연속 제패, KLPGA 투어의 '가을 여왕'으로 거듭난 김수지는 38위에 올랐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에 오른 KLPGA 투어 신인 이예원(19)은 6계단 상승, 45위가 됐다.

이번 랭킹에서 눈에 띈 골퍼는 박인비다. 지난 8월 AIG여자오픈 이후 대회에 나서지 않고 있는 박인비는 17위에서 5계단 하락한 22위에 자리했다. 박인비가 세계 랭킹 20위 바깥으로 밀린 건 지난 2012년 7월 이후 10년 3개월여 만이다.

AL 홈런 새 역사 쓴 양키스 '애런 저지'

뉴욕 양키스의 애런 저지가 시즌 종료 한 경기를 남기고 62호 홈런을 터트리며 아메리칸리그 신기록을 세웠다.

저지는 4일 텍사스 원정 경기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디노코를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62호 아치를 그렸다. 이는 유일하게 약물 논란이 없는 홈런왕 로저 매리스가 1961년 세운 아메리칸리그 홈런 기록(61)을 61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저지의 신기록 수립에 텍사스 팬들도 뜨거운 환호를 보냈고, 양키스 선수들은 더그아웃 밖으로 달려 나와 저지를 포옹하며 축하했다.

저지가 세운 새 역사에 찬사가 쏟아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저지의 62홈런을 축하한다." 라며 그를 태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가 만들어졌고, 더 많은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저지의 신기록 수립을 축하했다.

스포츠 매체 'ESPN'의 제프 파산 기자는 "그는 역사를 쓰고 있었다. 이제 그는 해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스포츠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역시 "야구의 새 역사!" 라며 극찬했다.

저지의 신기록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시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양키스의 로고 색깔로 장식했다.

저지와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잡은 관



▲ 뉴욕 양키스 애런 저지가 텍사스전에서 시즌 62호 홈런으로 아메리칸리그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다. 사진=archysport.com

중은 텍사스 팬인 코리 유먼스였다. 유먼스는 글러브를 끼고 왼쪽 외야 관중석 첫 번째 줄에서 경기를 관람하다 타구를 잡은 뒤 두 팔을 번쩍 들고 크게 기뻐했다. 유먼스는 세계적인 규모의 자산운용사 부사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USA투데이 등 언론은 저지의 62호 포 홈런공의 가치가 최소 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먼스는 아직 저지에게 홈런공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저지는 "홈런공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다들 알다시피 홈런공은 팬의 기념품이기도 하다. 팬들이 훌륭한 포구로 잡은 것이고, 홈런공의 모든 권리는 팬들에게 있다."며 "기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www.unicaresurgery.com

애나하임

쾌적한 병원시설에서 만족한 의료기술을 경험하십시오.

UNICARE SURGERY CENTER



유니케어 수술센터
Tennis Elbow 시술센터

• 테니스엘보우 시술 • 관절수술/골절수술/척추수술
• 각종 통증수술

- ▶ UNICARE SURGERY CENTER
- ▶ Orthopedic/Podiatry/Plastic/Hand & General Surgery
- ▶ 줄기세포(Stem Cell), 자가혈청치료(PRIP)
- ▶ 각종 수술 상담

미국보드 전문의와 최신 의료장비와
진료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 시술을 해드립니다.

각종 PPO보험/교통사고, 직장상해보험/메디케어 취급, 여행자보험, 기독의료상조



UNICARE
SURGERY CENTER

714-332-5000

1741 W. Romneys Dr. #B, Anaheim, CA 92801

